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67

JCCT 2023-5-8

#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가 진로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Moral Distress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College Students

이숙영\*, 정명숙\*\*

Sug-Young Lee\*, Myung-Sook Jung\*\*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가 진로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써, 4년제 간호대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IBM SPSS WIN/22.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상관관계는 도덕적 고뇌는 나이가 많고( $F=4.85, p=.029$ ), 외향적인 성격( $F=-2.82, p=.001$ )의 대상자에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 성숙도에서는 외향적 성격( $F=3.63, p=.001$ )의 대상자에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 총점의 평균은  $72.51 \pm 53.75$ 점이었으며, 하위영역 별로는 무의미한 돌봄  $23.36 \pm 19.04$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 실무는  $7.61 \pm 8.56$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로 성숙도의 평균은  $3.74 (\pm 0.56)$ 로 나타났으며, 직업의식  $3.61 (\pm 0.43)$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로 준비 행동의 평균은  $2.67 (\pm 0.60)$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가 진로 성숙도( $r=-.510, p=.000$ )를 진로 준비 행동( $r=-.353, p=.001$ )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겪는 도덕적 고뇌에 대한 중재를 통해 이들의 진로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을 긍정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도덕적 고뇌, 진로 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relationships between the moral di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career maturity, and between the moral distress of the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using a descriptive correlation methodology. Analysis is done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IBM SPSS WIN/22.0.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jects with an outgoing personality ( $F=-2.82, p=.001$ ), who suffered from moral distress at an older age ( $F=4.85, p=.029$ ).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maturity among subjects with an extroverted personality ( $F=3.63, p=.001$ ). The average score of the subjects' moral distress is  $72.51 \pm 53.75$ , and by sub-area, futile care was the highest with  $23.36 \pm 19.04$ , and the lowest with  $7.61 \pm 8.56$  in physician practice. The average of career maturity was  $3.74 (\pm 0.56)$ , and by sub-area, career attitude was the highest with  $3.98 \pm 0.54$ , and the lowest with  $3.61 \pm 0.43$  in professionalism. The averag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2.67 (\pm 0.60)$ .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al stress of nursing students is a factor affecting career maturity ( $r=-.510, p=.000$ )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r=-.353, p=.001$ ).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positively enhance the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rough intervention for the moral anguish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areer Matur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oral Distress, Nursing college students

\*정희원,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월 25일, 수정완료일: 2023년 4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6일

Received: January 25, 2023 / Revised: April 15, 2023

Accepted: May 6, 2023.

\*\*Corresponding Author: msjung@kunjang.ac.kr

Dept of Nursing, Kunjang University College, Korea

## I. 서 론

간호 대학생 시기는 되고 싶은 나를 위한 인생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규범적인 발달과업과 유연한 적응이 필요한 전환의 기회이며, 광범위한 발달체계 안에서 개인의 삶과 경로를 설계해야 시기이다. 그리고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해, 날카로운 균형 감각을 유지한 채 인생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딛는 연습을 통해 되고 싶은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 [1].

도덕적 고뇌(moral distress)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옳은 것을 따르지 못할 때 경험하는 심리적 불균형 현상을 말한다[2]. 최근 임상 현장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화된 의료 환경 속에서 환자의 권리는 신장 되었으나, 생명을 직접적으로 간호하는 간호사들은 여러 윤리적 상황에서의 갈등을 겪게 되어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는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어지고 있다[3],[4].

Super[5]는 진로 성숙을 한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연령별로 이루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readiness)라고 보았다. 진로 성숙은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며 현실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한다[6]. 개인 스스로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교육 과정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통해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직업에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시야를 넓혀나가며 올바른 진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7].

진로 준비 행동은 자신의 올바른 진로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여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진로 준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의미한다[8]. 개인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야 하고, 대학생 시기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간호 대학생들은 교육과정상 필수적으로 전공교과목은 임상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임상실습 동안 이들은 다양한 윤리적 갈등에 노출된다.

전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벗어나 실습생이라는 불안정한 위치에서 임상실습을 하게 된다. 간호사와 달리 간호 대학생은 법적 권한과 직접 간호 수행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관찰 위주의 실습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도덕적 고뇌를 학생들 역시 임상실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9]. 이러한 경험과 더불어 간호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진로 준비 행동 부족은 졸업 후 간호사라는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막중한 업무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한 두려움, 책임감 등은 이들에게 이직을 선택하게 하는 동기로 이어질 수 있다[10].

간호 대학생들은 실습 시 겪는 이러한 도덕적 고뇌는 자신의 진로 결정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혼돈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간호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성공적인 취업과 취업 현장의 적응을 위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도덕적 고뇌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로 교육을 제공하여 대학생들의 진로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겪는 도덕적 고뇌와 이직에 관한 연구들이다[3], [11],[12]. 따라서 간호 대학생만이 겪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들이 임상실습에서 겪는 도덕적 고뇌가 진로 성숙과 진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 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현장에서 겪는 도덕적 고뇌가 진로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확고한 직업정체성을 갖게 되도록 진로 교육 자료에 대한 기초자료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가 진로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전라북도 소재 2개 대학 3, 4학년 간호 대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에서 10월까지, 임상실습 6주 이상을 경험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고자 수락한 자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표본 수 산출 근거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98%로 하였을 때 135명이 산출되어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도덕적 고뇌

Hamric 등[13]이 개발한 도덕적 고뇌 측정도구(MDS-RNurse Questionnaire [Adult])를 Chae 등[14]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도덕적 고뇌 측정도구(KMDS-R)를 말한다. 이 도구는 총 21문항으로 5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영역별로 보면 무의미한 돌봄 5문항, 간호 실무 5문항, 기관 및 상황적 요인 4문항, 윤리적 문제를 주장하는 데 대한 제약 3문항, 의사 실무 4문항이다. 도덕적 고뇌 점수는 고뇌 빈도 점수와 불편감의 정도(강도) 점수를 곱하고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총점으로 계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고뇌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2) 진료성숙도

진료 성숙도 규칙 측정하기 위해 1991년도 한국교육개발원[15]에서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진료 계획성, 직업 태도, 진료 독립성, 자기 이해, 진료 탐색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Lee, Han[16]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료 성숙도의 5개 하위영역을 태도적 차원과 능력적 차원으로 재분류하였다. 우선, 태도적 차원의 진료 성숙도는 진료 태도, 합리적 의사결정, 직업의식으로 구성하였다. 진료 태도는 진료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료 태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의식은 직업과 일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태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합리적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료 독립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3) 진로 준비 행동

Kim[17]이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 행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타 당화한 '진로 준비 행동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대학생들이 진로 혹은 직업을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Kim[17]은 진로 결정을 확신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진로 결정을 위해 수행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토록 하였으며 면담 과정을 통하여 진로 혹은 직업을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활동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하도록 하여 기존의 해외 도구들을 참고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중복되거나 부적합한 문항 4개를 삭제한 후 총 16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5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척도의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도덕적 고뇌, 진료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 정도는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도덕적 고뇌, 진료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 t-test와 ANOVA로 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 진료성숙도 그리고 진로 준비 행동의 관계는 Pear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가 진료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에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설문지와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연구 참가 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 내용에 대한 것은 언제든 철회 가능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작성한 동의서에 서명 받아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두 개의 대학을 편의 추출하여 수행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53명으로 여자가 118명(77.1%), 남자가 35명(22.9%)이고, 연령은 24이상 14.3%, 23세 이하 85.7%으로 나타났다. 94명(61.4%)의 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59명(38.6%)의 학생은 무교로 나타났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격 성향은 외향적 성격 89명(11.1%), 내향적 성격 64명(11.1%), 그리고 매우 부정적인 성격 1명(0.7%)를 보였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 및 흥미 44명(28.8%), 취업률이 높아서 44명(28.8%), 부모님이나 주위의 권유 41명(26.8%), 전문직 이라서 9명(5.9%), 기타 7명(4.6%)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구분	세부 구분	인원	비율
성별	여성	118	77.1
	남성	35	22.9
연령	24세 이상	131	14.3
	23세 이하	22	85.7
종교 유무	있음	94	61.4
	없음	59	38.6
성격	내성적	64	44.3
	외향적	89	55.7
간호학과 지원 동기	부모 /주변의 추천	41	26.8
	높은 취업률	44	28.8
	적성에 맞춤	44	28.8
	직업의 전문성	9	5.9
	기타	7	4.6

#### 2.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 진료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의 정도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 진료성숙도 그리고 진로 준비 행동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도덕적 고뇌 총점의 평균은 72.51±53.75점이었으며, 하위영역 별로는 무의미한 돌봄 23.36±19.04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 실무 21.02±18.65점, 기관 및 상황적 요인 15.64±11.84점, 윤리적 문제를 주장하는 데 대한 제약 5.69± 7.97, 의사 실무 7.61±8.56점으로 나타났다.

진로 성숙도의 평균은 3.74(±.5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구성 요인에서는 진로 태도 3.98(±.54)이 가장 높았으며, 합리적 의사결정 3.63(±.66), 직업의식 3.61(±.43)순으로 나타났다. 진로 준비 행동의 평균은 2.67(±.60)로 나타났다.

표 2. 도덕적 고뇌, 진료성숙도, 진로준비행동의 정도

Table 2. Moral anguish, career maturity, and degre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구분	세부 구분	평균±표준편차(M±SD)	
도덕적 고뇌	도덕적 고뇌	72.51±53.75	
	무의미한 돌봄	23.36±19.04	
	간호실무	21.02±18.65	
	기관 및 상황적 요인	15.64±11.84	
	윤리적 문제	5.69±7.97	
진료성숙도	진로태도	3.98±.54	3.74±.56
	합리적 의사결정	3.63±.66	
	직업의식	3.61±.43	
진로준비 행동의 정도	진로준비행동	2.67±.60	2.67±.60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고뇌, 진료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고뇌, 진료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의 정도와의 관계는 <표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고뇌 차이는, 연령에 있어 24세 이상(3.46±.59)이 23세 이하(3.69±.5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F=4.85, p=.029) 도덕적 고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적인 성격(3.71±.57)을 가진 대상자는 내성적 성격(3.25±.52)소유자 보다 도덕적 고뇌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2.82, p=.001). 그 외의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 성숙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외향적인 성격(3.11±. 48)을 가진 대상자는 내성적 성격(3.37±.51)소유자 보다 진로 성숙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63, p=.001). 그 외의 요인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 준비 행동의 차이는 외향적인 성격(3.99±.57)이 내향적인 성격(3.72±.66)보다 진로 준비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4.21, p=0.01), 그 외의 요인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3.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 진로 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 정도와의 관계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s moral anguish,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구분	세부 구분	도덕적 고뇌		진로 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	
		M±SD	F or t (p)	M±SD	F or t (p)	M±SD	F or t (p)
성별	여성	3.45±.57	-1.91 (.068)	3.28±.45	0.84 (.401)	3.87±.58	-0.34 (.735)
	남성	3.68±.63		3.06±0.62		3.88±.73	
연령	24세 이상	3.46±.59	4.85 (.029)	3.27±.50	-1.13 (.261)	3.85±.64	-0.67 (.501)
	23세 이하	3.69±.58		3.05±.52		3.39±.57	
종교 유무	있음	3.48±.62	0.32 (.750)	3.25±.50	2.71 (.008)	3.93±.58	1.38 (.170)
	없음	3.56±.56		3.18±.52		3.77±.68	
성격	내성적	3.25±.52	2.82 (.001)	3.37±.51	-3.63 (.001)	3.72±.66	-4.21 (.001)
	외향적	3.71±.57		3.11±.48		3.99±.57	
간호학과 지원 동기	부모 또는 주변의 추천	3.48±.48	1.35 (.247)	3.26±.44	0.15 (.981)	3.83±.63	0.52 (.906)
	높은 취업률	3.47±.61		3.26±.48		3.87±.58	
	적성에 맞음	3.56±.56		3.19±.54		3.98±.48	
	직업의 전문성	3.66±.60		3.14±.47		3.79±.86	
	기타	3.36±.93		3.39±.70		3.63±.88	

\* 사후검정 : Scheffe test

4. 도덕적 고뇌, 진로 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 진로 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 정도 상관관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도덕적 고뇌와 진로 성숙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510, p=.000$ )를 나타냈으며, 도덕적 고뇌와 진로 준비 행동( $r=-.353,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은 상관관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도덕적 고뇌, 진로 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 정도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oral anguish,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도덕적 고뇌	진로 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 정도
도덕적 고뇌	1	-.510 (.001***)	-.353 (.001***)
진로 성숙도		1	-.029 (.680)
진로 준비 행동 정도			1

5.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도덕적 고뇌에 영향요인을 확인을 위해 회귀분석 식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분석 검정을 위하여 F값을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유의함을 알 수 있었고,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로 성숙( $\beta=-.457, p=.000$ ), 진로준비행동( $\beta=-.502, p=.000$ )이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총 설명력은 13%이었다. 따라서 진로 성숙과 진로 준비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덕적 고뇌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도덕적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factors affecting moral anguish

구분	$\beta$	F	p	R <sup>2</sup>
		39.15	.000	.130
Career Maturity	-.457	54.29	.000	.11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502	90.88	.000	.130

IV. 고찰

본 연구는 간호학과 재학 중인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도덕적 고뇌, 진로 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에 대한 서술적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와 관련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접근할 수 있는 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도덕적 고뇌, 진로 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반적인 특성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8]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외향적 성격적 특성이 진로 준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간호 대학생들의 성격적 특성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적용 가능한 상담 및 교육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 총점의 평균은  $72.51 \pm 53.75$ 점이었으며, 하위영역 별로는 무의미한 돌봄이 가장 높았고, 간호 실무, 기관 및 상황적 요인, 윤리적 문제를 주장하는 데 대한 제약, 의사 실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19]에서 '간호 실무'보다 '무의미한 돌봄'에서의 도덕적 고뇌가 더 큰 것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무의미한 돌봄'의 도덕적 고뇌는 다른 하부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상실습에서 간호 대학생이 경험하는 '무의미한 돌봄'의 도덕적 고뇌는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나, 표준지침을 지키지 않는 의료행위를 관찰하고, 상호 존중하지 못하는 병원 문화를 체험하고, 비일관적이고 표준화되지 않은 실습 교육을 경험할 때 간호사들의 환자 돌봄에 대해서 무의미한 돌봄을 간접 경험한다고 하였다[9].

배우는 학생 눈으로 환자 간호의 책임과 권한은 없지만, 간호 대학생들 또한 도덕적 고뇌를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 성숙도의 평균은  $3.74(\pm 0.56)$ 으로 나타났으며, 하위구성 요인에서는 진로 태도가 가장 높았으며, 합리적 의사결정, 직업의식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성숙도를 연구한 Choi[20]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전공과 직업이 거의 동일시되는 간호대학생이 자신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높은 진로 태도 성숙도를 유지하는 것은 졸업 후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도덕적 고뇌가 진로 성숙도( $\beta = -.457, p = .000$ )와 진로 준비 행동( $\beta = -.502, p = .000$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도덕적 고뇌가 클수록 진로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이 낮았으며 이는 직업 가치관이 진로 태도 성숙도와 취업 준비 행동[7]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

구 결과와 유사하다. 간호학과의 특성상 간호사로서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꾸준히 진로를 탐색하지 않으면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 대학생은 대상자의 도덕적인 간호행위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어 전문 간호사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배워가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자신을 행동의 주체자로 인식하며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 확립을 통해 성숙한 진로 태도를 형성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여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직업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간호 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겪게 되는 도덕적 고뇌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올바른 직업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적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수행한 연구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가 진로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에 성찰을 통해 진로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 교육 개발 과정 및 진로 설정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가 진로 성숙도,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 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겪게 되는 도덕적 고뇌가 진로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한 실질적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 실습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도덕적 고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과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덕적 고뇌가 진로 성숙도와 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규교과 과정에서 간호윤리를 통한 접근은 물론이고 비정규 교과에서도 간호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H. S. Yoo, "Career Identity Status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Difference in Career Efficacy,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Career Barrier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7, No. 2, pp.283-309, 2016. <https://doi.org/10.15753/aje.2016.06.17.2.283>
- [2] J. McCarthy, R. Deady, "Moral distress reconsidered", *Nursing Ethics*, Vol. 15, No. 2, pp.254-262, 2008.<https://doi.org/10.1177/0969733007086023>
- [3] H. N. Cho, M. J. An, H. S. So, "Differences of Turnover Intention by Moral Distress of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5, pp.403-413, 2015. <https://doi.org/10.5392/JKCA.2015.15.05.403>
- [4] J. S. Lee, S. H. Ahn, "The Impact of Moral Sensitivity and Moral Distress on End-of-life Care Performance among Intensive Care Unit Nurses",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Vol. 22, No. 2, pp.140-160, 2019. <https://orcid.org/0000-0002-1694-0027>
- [5] Super, D. E,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5.
- [6] Jung, Mina, Roh, Jaeun.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adolescents career matur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27, No. 3 pp. 33-162, 2016. <http://dx.doi.org/10.14816/sky.2016.27.3.133>
- [7] M. S. Kim, "The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Career Attitude Maturity Influen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1 pp. 96-105,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96>
- [8] Y.J. Ko, N.S. Kim,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ediated by Career Decision Level",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8, No. 4, pp.301-308, 2020.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3277>
- [9] C. H. Kim, H. S. Choi,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Moral Distress in Clinical Practice",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3, pp.355-364, 2016.<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3.355>
- [10]L. McKenna, L. McCall, N. Wray, "Clinical placements and nursing students' career planning: A qualitative explo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Vol.16, No.2, pp.176-182, 2010. DOI: 10.1111/j.1440-172X.2010.01827.x
- [11]B. H. Park, Y. J. OH, "Moral Distress Experienced by Nurses in South Korea: An Integrate Review",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Vol. 19, No. 3, pp.312-327, 2016. DOI : 10.35301/ksme.2016.19.3.312
- [12]Y. R. Chae, S. J. Yu, E. J. Lee, E. H. Park, "The Relation Among Moral Distress, Physical Symptoms and Burnout of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3, No. 4, pp.430-440, 2017. DOI : 10.5977/jkasne.2017.23.4.430
- [13]A.B. Hamric, C.T. Borchers, E. G. Epstein,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instrument to measure moral distress in healthcare professionals", *AJOB Prim Res*, Vol.3, No.2, pp.1-9, 2012. <https://doi.org/10.1080/21507716.2011.652337>
- [14]Y. R. Chae, S. J. Yu, E. J. Lee, K. J. Kang, M. S. Park, M. Yu,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oral Distress Scale-Revised for Korean Hospital Nurse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2, pp.228-239, 2016.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2.228>
- [15]S. M Jang, D, S. Lim, B. M, Song, "A Technical Report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91.
- [16]G. H. Lee, J. C. Han, "A tool for validating a tool for measuring career attitud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 8, No. 1, pp.219-255, 1997.
- [17]B. W. Kim ,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311-333, 1997.
- [18]W. H. Hwang, K. E. Bae, "The Effect of Personality Type and Career Decision Making Typ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8, No. 3, pp.1237-1258, 2017. DOI : 10.22143/HSS21.8.3.66
- [19]H. Y. Yun, S. K. Kim, H. E. Jang, S. W. Hwang, S. H. Kim, "The Influence of Moral Di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Moral Courag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Vol. 21, No. 4, pp.360-376, 2018.

- [20]J. R. Choi, Y. M. Ha, “Relationships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Self-Esteem, Department Satisfaction, Family Strength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6, No. 2, pp.307-326, 2020. <https://doi.org/10.24159/joec.2020.26.2.307>